

# 극심한 성적 부진·수장 '시즌 아웃'...SK '우울한 시즌'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 넘봤지만 원투펀치 이탈  
투타서 경기력 모두 바닥...한화화 '2약' 분류  
염경엽 감독 건강 문제로 다시 이탈 초유의 사태

2020년은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에 '최악의 한 해'나 다름없다.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부진을 겪어 한화 이글스와 '2약'으로 분류됐고, 선수단의 수장인 염경엽 감독이 시즌을 조기 마감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까지 넘봤던 SK는 시즌 구상이 모두 틀어지면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지난 시즌 원투펀치를 이뤘던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양현산(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모두 떠나 보낸 SK의 전력에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 성적은 예상을 크게 밑돈다.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고들 하는데 SK는 선발진부터 크게 흔들렸다.

SK는 니 킹업과 리카르도 핀토를 영입하고, 필승조이던 김태훈을 선발로 돌려 선발진을 개편했다.

하지만 킹업이 팔꿈치 부상으로 단 2경기에만 등판한채 짐을 싸면서 선발진에 구멍이 생겼다. 핀토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선발로 전환한 김태훈은

부진을 거듭한 끝에 다시 불펜으로 보직을 바꿨다.

불펜진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마무리 투수 하재훈은 부진 끝에 전력에서 이탈했다. 지난해 홈런 2위에 오른 서진용도 동반 부진에 빠졌다.

타선이라도 힘을 내줬으면 좋았으련만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부진 속에 방망이도 쥘 틈이 없었다. 주전 포수 이재원이 부상으로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고, 주전 2루수와 유격수로 점찍었던 김창평과 정현이 부상과 부진을 겪으면서 센터라인도 붕괴됐다.

SK의 투타 성적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다. 팀 타율(0.252)과 팀 득점(452점), 팀 타점(429개)에서 모두 9위고, 팀 OPS(출루율+장타율)도 0.713으로 9위다. 팀 평균자책점은 5.84로 최악이다.

경기력이 모두 바닥을 친 SK는 시즌 개막 직후인 5월7일 인천 한화전에서

5월19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까지 10연패에 빠지며 하위권으로 내려앉았고, 이후 좀처럼 하위권을 뺄 못했다. 겨우 연패를 끊는데 그쳤을 뿐 좀처럼 상승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

예상 밖의 극심한 부진에 선수단의 수장인 염경엽 감독마저 쓰러졌다.

염 감독은 6월25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 더블헤더 1차전에서 경기 도중 쓰러졌다. 프로스포츠 감독이 스트레스로 건강 이상을 겪는 일은 적잖았지만, 경기 도중에 쓰러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불충분한 식사와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염 감독은 2개월 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들었고, 이후 휴식을 가졌다.

염 감독은 이날 1일 인천 LG 트윈스전을 통해 복귀했지만, 다시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지난 6일 잠실 두산전을 앞두고 경기장에 출근했던 염 감독은

경기를 지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병원으로 이동했다.

SK는 염 감독이 남은 시즌 팀을 이끌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잔여 42경기를 박경완 감독대행 체제로 치르기로 했다.

이미 '최악'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시즌이지만, SK로서는 더 최악으로 치닫하는 것을 막는 것이 숙제다.

급선무는 연패를 끊는 것이다. 3연패 중이던 SK는 염 감독이 1일 복귀한 후에도 연패를 끊지 못했다. 10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인천 KIA 타이거즈전부터 8일 인천 키움전까지 내리 졌다.

8일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는 10-2까지 앞서며 연패 탈출 희망을 키웠는데, 투수진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15-16으로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다.

10연패에 빠지면서 불명예 기록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SK의 구단 최다 연패 기록은 2000년 6월22일 인천 롯데전부터 7월5일 사직 롯데전까지 기록한 11연패다.

2000년은 SK의 창단 첫 해라 전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은 다르다. 현 상황에서 11연패는 한층 치욕적이다.

프로야구 사상 첫 100패와 팀 최저 승률도 SK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기록이다.

SK가 남은 41경기에서도 현재 승률(0.314) 만큼의 성적을 거둔다면 13승 28패를 기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최종 성적은 45승 1부 98패가 된다. 현재 승률보다 조금만 부진하면 100패에 다다

를 수도 있다.

프로야구에서 아직 100패를 기록한 팀은 나오지 않았다. 프로야구 한 시즌 최다 패배 기록은 2002년 롯데 자이언츠가 기록한 97패다.

SK의 팀 역대 최저 승률은 창단 첫 해인 2000년 기록한 0.338(44승 86패)다. SK의 현재 승률을 감안하면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즌 49승 이상을 거둬야 한다. 남은 41경기에서 최소 17승을 거둬야 팀 역대 최저 승률을 갈아치우는 피할 수 있다.

일단 연패에서 벗어나야 구단 최다 연패의 불명예를 쓰는 일을 피할 수 있고, 100패와 팀 역대 최저 승률을 피해 갈 돌과구도 마련할 수 있다.

뉴스

## '호전' 김광현, 복귀 준비...조만간 불펜 투구 실트 감독 "매일 상태 좋아져...다음 단계 나아갈 준비 돼"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김광현의 상태가 매일 좋아지고 있다. 힘을 다시 키우고 있고, 몸 상태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속 상태를 점검할 것이다. 현재까지 과정은 순조롭고,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인트루이스는 2-3일 이내에 김광현이 불펜 투구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현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원정 중이던 지난 5일 복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신장 경색 진단을 받은 김광현은 혈액 희석제 투여 등 약물 치료를 받은 뒤 하루 만에 퇴원했다.

김광현은 부상자명단에 오르기 전까지 5경기에서 2승 무패 1체이브 평균자책점 0.83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신장 경색으로 10일째 부상자명단(ML)에 오른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본격적으로 복귀 준비에 나섰다.

김광현은 지난 8일과 9일(한국시간) 홈구장인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가벼운 훈련을 했다. 9일 홈에서 벌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을 앞두고는 그라운드와 나와 캐치볼 등을 소화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실트

## KIA, '마지막 광주 방문' LG 박용택 위해 행사 마련



KIA 타이거즈가 8일 박용택의 마지막 광주 원정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 KIA 타이거즈 제공)

을시즌 마치고 은퇴 전광판 응원 메시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하는 LG 트윈스 베테랑 타자 박용택(41)의 마지막 광주 방문을 기념하고자 작은 행사를 마련했다.

KIA는 8-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홈 2연전을 치렀다. LG의 올 시즌 광주 원정은 이번 2연전이 마지막이다.

올 시즌을 마친 후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박용택이 선수 신분으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셈이다.

박용택의 은퇴 투구는 무산됐다. 일각에서 은퇴 투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논란이 일자 박용택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KIA는 작은 행사를 마련해 박용택의 마지막 광주 방문을 기념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KIA는 전광판을 통해 '굿바이 박용택!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표출했다.

이어 맷 윌리엄스 감독과 KIA 주장 양현종이 박용택에게 꽃다발을 선사했다. 꽃다발 전달식이 마무리된 후 양 팀 선수들은 홈플레이트에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박용택의 은퇴 행사를 연 것은 KIA가 처음이다.

서선욱기자

## 울산 김도훈 감독, 12일 대구 상대로 K리그 200경기

부임 후 대구전 무패행진  
윤빛가람, 300번째 경기 앞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울산 현대의 김도훈 감독이 통산 20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다.

울산이 오는 12일 오후 7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 2020 20라운드를 갖는다.

이 경기는 울산 사령탑 김 감독의 K리그 통산 200번째 경기다.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사령탑으로 감독 경력을 시작한 김 감독은 2017년 시즌부터 울산의 지휘봉을 잡았다.

지도자로 통산 199전 89승58무52패의 성적을 거뒀다. 울산에선 71승37무25패, 대구전에서 승리하면 통산 90승째를 신고한다.

지난 시즌 다득점에서 한 골 뒤져 전북 현대에 아쉽게 우승을 넘겨준 울산은 올 시즌 단 1패만 기록하는 월등한 경기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19라운드까지 14승4무1패(승점 46)로 2위 전북(승점 41)에 승점 5 차이로 앞선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2무로 무패 행진 중이다. 광주FC와의 19라운드에서



아쉽게 1-1로 비겼지만 전북이 성남 FC에 패하면서 승점 차를 벌일 수 있었다.

안방에서 승점 3을 챙겨 전북과 차이를 더 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구전은 최근 1무4패로 주춤하지만 파이널A(1-6위) 진입을 확정하기 위한 의미가 강하다. 7승5무7패(승점 26)로 5위에 자리했다.

리그에서 대구에 마지막으로 패한 건 2013년 6월23일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가 K리그2(2부리그)에 있어 대결할 일이 없었다.

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리그 기준으로 대구에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다. 3년4개월 동안 11경기를 치러 8승3무를 기록했다.

성남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FC서울, 광주FC전에서 연거푸 골을 넣었다.

대구 공격의 핵 세징야와 같은 브라질 출신으로 자존심 대결이 관전 포인트다.

울산은 대구를 상대로 K리그 역대 전적에서 25승11무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리그에서 대구에 마지막으로 패한 건 2013년 6월23일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가 K리그2(2부리그)에 있어 대결할 일이 없었다.

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리그 기준으로 대구에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다. 3년4개월 동안 11경기를 치러 8승3무를 기록했다.

## 프로농구 컵대회, 20~27일 군산 개최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2020 MG새마을을금 KBL컵대회(이하 컵대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9-30일 개최 예정이던 서머매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되면서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컵대회는 다음달 9일 2020-2021시즌 개막을 앞두고 팬, 미디어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초대 타이틀 스폰서는 'MG새마을을금'이다.

KBL 소속 10개팀과 국군체육부대(상무까지 총 11개팀)가 참가한다.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4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새로운 외국인선수와 아시아쿼터 1호로 KBL에 진출한 나카무라 타이치(DB)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일에는 예선이 열리고, 26-27일에 준결승과 결승이 진행될 예정이다.

## 손흥민 "롤모델 호날두 축구를 잘하는 건 메시"

가장 좋아하는 선수 톱3에 박지성·호날두·메시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28·토트넘)이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그리고 박지성(은퇴)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꼽았다.

그러면서 "롤모델은 호날두지만 축구를 잘하는 건 메시"라고 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 '볼보'의 공식 홍보대사를 맡은 손흥민이 8일 유튜브 채널 '모터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국가대표 선배였던 박지성과 호날두, 메시를 꼽았다.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라는 건 방향이 없는 것 같다. 호날두를 빼놓을 수 없다. (박)지성이 형도 어릴 때, 많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준 분이다. 두 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메시지를 언급하며 "호날두가 롤모델인 건 확실하지만 축구를 좀 더 잘하는 선수로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뽑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9-2020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나에게는 모두 소중한 순간이다. 한 장면만 뽑기 그렇지만 팔이 부러진 장면을 뽑고 싶다. 내가 얼마나 스포츠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지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2월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초반 오른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투혼을 발휘하며 멀티골을 터뜨려 큰 화제가 됐다.

이후 국내에서 수술대에 올랐고, 리그 재개 이후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뉴스